

성경적 관점에서 본 결혼/부부 상담의 용서 문제

김 준 박사
(Ph.D., 보스턴대학교 졸)

국문초록

이 논문은 결혼 상담 중에 일어나는 용서의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용서는 종종 결혼문제를 포함한 인간관계의 문제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최근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용서가 성경에서 보듯이 신학적으로 풍성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상담에서는 심리학적 연구에 주력하고 성경적인 관점이 결여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대표적인 용서이론중의 하나인 Everett Worthing, Jr.의 이론을 평가한 후, 이 글은 결혼 상담에서의 용서의 문제에 대해 이들은 3회에 걸친 성경적인 상담 접근을 제공한다. 첫 번째 상담은 상처와 피해자를 이해하고 결혼 상담에서 용서의 문제를 다룰 때 주의할 점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의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비유를 중심으로 성경적 관점을 제공한다. 즉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용서를 하지 않을 때는 상대방을 억압하는 것이고, 용서는 일회적 사건이 아닌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용서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지적한다.

주제어 : 용서, 결혼상담, 성경적 상담, 성경에서의 용서, 기독교 상담

I. 여는 글

부부 상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느 단계에서 진전이 없이 정체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상담이 답보된 경우 상담자와 피상담자는 지치고 상담에 대

한 흥미를 잃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종종 부부사이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와 그에 대한 용서의 문제와 연결된다. 해결되지 않은 부부사이의 상처는 관계에 보이지 않은 벽을 만들고 상담의 효과를 저해하며 관계 회복의 중요한 요소인 부부사이의 충분한 신뢰의 형성을 어렵게 한다.

결혼관계에서 용서는 주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용서가 결혼관계의 깊은 부분을 관통하는 중요한 이슈일 때가 많고, 실제로 결혼관계에서 용서는 관계의 진전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결혼에 관계된 상담서적이 직·간접적으로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별히 American Association of Christian Counselors (AACC)에서 발행하는 결혼과 가족 학술지인 Marriage & Family: A Christian Journal은 1999년 2호와 3호 2권 전체에 걸쳐 용서의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이 글은 다양한 용서의 접근 방법 중 성경적 방법으로 어떻게 결혼관계에서 용서의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를 논한다. Don Browning에 따르면, 크리스찬 사역의 실천(practice)은 그자체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론의 위에서 행해지는 “이론이 실린 실천 (theory - laden practice)”이다.¹⁾ 그러므로 상담의 실재를 다루는 임상을 논할 때도 관계된 이슈 (예: 용서의 문제)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먼저 이 글은 기존의 용서연구중 대표적 이론가인 Everett Worthington의 이론을 평가한 후 간단한 사례를 통해 결혼 상담에서 성경적 용서의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기존 용서연구와 단점들

용서는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중심 주제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로 완성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지상사역가운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연

결해서 인간의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 부분 (마 6:9-15)이고 마태복음 18장의 용서 예화 (18:23-35)이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의 용서가 성경의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신학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용서가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한 신앙의 실천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교회안과 성도의 삶속에 자주 강조되는 덕목은 아니다. 반면에 심리학과 상담학 분야에서는 최근에 용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기독교 심리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별히 Lewis Smedes의 베스트셀러 “용서의 기술”은 이 흐름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²⁾ 이들 연구는 대개 “용서의 개념” “용서의 동기” “용서의 방법들”에 관한 것들이며, Everett Worthington Jr.와 Robert Enright는 이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들이다. Forgiveness Father로 불리는 Enright는 용서의 개념을 정교화 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용서의 4단계 모델인 “과정 모델 (Process Model)”을 개발했다.³⁾ Worthington은 미국의 대표적인 크리스찬 심리학자로서 결혼가족치료와 용서연구의 권위자이다. 그는 일반 연구서적 외에 기독교 출판사를 통해서 결혼, 용서 등의 주제로 책을 저술했으며⁴⁾ 기독교 심리학 학술지의 주요 기고자이다. 그는 5단계의 용서의 모델인 “피라미드 용서모델 (The Pyramid Model of Forgiveness)”을 개발했다.

이 글에서는 Worthington의 모델을 중심으로 현재 용서에 관한 접근 방법을 비판하고자 한다. 아래는 잘 알려진 Worthington의 용서 모델의 요약이다. 이 모델은 각 다섯 단계의 처음 철자를 따서 REACH라고 불린다.⁵⁾ Worthington의 용서 모델은 결혼관계에서의 용서에도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의 책 Hope-Focused Marriage Counseling은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논하면서 이 방법을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고 있다.⁶⁾

1. Worthington의 5단계 용서모델

1단계: 상처의 회상 (Recall the Hurt)

Worthington은 상처받은 사람의 용서를 방해하는 주요 요소로 상처의 가

해자와 상처의 재경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가정한다. 먼저 상처를 반복해서 회상함으로써 아픔을 둔하게 하여 두려움을 제거해갈 수 있다고 한다. 즉 상처를 회상하는 것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며, 이것이 용서의 출발이다.

2단계: 가해자와의 공감 (Empathize with the One 꺾 Hurt You)

상처를 준 가해자를 생각하며 상처를 준 당시 상황에서 가해자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당시의 상황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 그리고 가해자의 좋은 부분과 그와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생각한다.

3단계: 이타적인 선물 (Altruistic Gift)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자신도 이러한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주었던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삶에서 자신의 잘못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의 감사 (gratitude)를 회상 또는 상상하며 용서의 동기를 유발한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조건 없이 주는 선물로서 용서를 베풀 준비를 하게 된다.

4단계: 용서의 실행 (Commitment to Forgive)

상처를 입은 피해자는 용서를 하기로 결정을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용서를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 나중에 취소하는 유혹을 방지하도록 한다.

5단계: (용서의 지속) Holding onto Forgiveness

용서는 어려운 일이므로 용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용서 후에도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들을 배운다. 용서를 유지하기 힘이 들면 다시 1-4단계를 반복한다. 다른 용서할 부분이 있는지를 나누고 용서하도록 한다.

2. 문제점

Worthington의 방법은 전형적으로 피해자의 경험과 감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용서의 핵심은 가해자를 공감 (empathy)하며 이타적

인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유용할 수는 있으나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빠진 수평적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그가 기독교 심리학자로 기독교인들을 독자로 한 저술에서도 하나님, 복음, 그리스도, 성경, 죄 등의 용어들이 거의 전무하여 기독교적인 특징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도 나타난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의 약점은 용서의 동기, 복음과 용서의 연결, 사람의 용서와 연관된 사람의 이해의 영역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1)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

Enright와 Worthington의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상처의 경험과 상처가 주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Worthington은 이것을 Recall이라고 했고 Enright는 Uncovering Phase라고 했다. 물론 치유에 있어서 상처에 대한 이해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Worthington과 Enright에게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과거의 상처를 다시 회상함으로써 상처가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하고 용서를 선택하기 위함이다. 즉 과거의 상처는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 악한 마음 등을 품게 하여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 용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용서는 선택이기에 용서를 하는 과정이 상처의 후유증보다 더 큰 심적 고통을 가져다준다면 용서를 꼭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한다.

반면에, 성경은 용서를 성도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대인 학자인 Doff도 용서가 구약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백성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⁷⁾ 예수님도 용서에 관한 가르침에서 용서를 명령하고 있으며 마음의 중심으로 하는 용서를 언급함으로써 용서의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다. 성경은 용서가 선택이 아닌 성도가 순종해야 할 명령으로 말하고 있다.

2)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 부족

성경에 흐르는 용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정

점을 이룬다. 복음은 실로 하나님의 의를 범한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도바울은 서로 용서를 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과 같이 하라고 권면하며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서의 용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근본을 두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엡 4:32; 골 3:13). 그러나 Worthington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기독교상담학자들은 복음과의 이러한 분명한 연결에도 불구하고 주로 인간의 상처경험에 바탕을 둔 심리학적 이론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3) 죄와 연관된 인간의 이해의 부족

상담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상담의 이론과 입장을 결정한다. 성경을 통한 중요한 인간의 이해의 주요한 관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으로 창조된 것과 타락 (Fall)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renewed life in Christ)이다. 이것은 인간의 동기이론 (motivation theory), 상담의 과정 (procedure)과 방향을 결정한다.

이러한 인간의 이해에 따르면 상처의 피해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죄인된 인간으로 책임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록 피해자가 상처를 당했다고 피해자의 상대방에 대한 대응이 항상 합당한 것이 아니다. 결혼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상처를 입은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고 하나님으로 부터의 용서받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를 제공해 준다.

Winston Smith에 따르면 결혼관계를 포함한 인간관계는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드러나게 한다.⁸⁾ Smith에 따르면 십계명은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방식의 표현이고 이것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 특히 크리스찬의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특성이 드러나는 관계가 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헌신이 배우자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헌신과 사랑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만 성취될 수 있다.⁹⁾ 결혼에 있어서 용서의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한다.

3. 결혼에서의 용서의 접근 방법: 성경적 관점

소규모 사교육 학원을 하는 박순호 최경미 (가명) 부부는 지난 16년간 결혼생활을 해 왔는데, 처음 신혼 1년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크고 작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몇 번의 결혼의 위기를 넘겼지만 최근에는 심한 갈등 때문에 결혼 상담을 하게 되었다.

상담을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결혼관 인생관에 관한 삶의 가치를 공유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고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그들의 대화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가정위에 이루어짐을 알고 더 나은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서로의 노력을 확인하면서 작은 변화들을 감지하며 변화된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두 사람은 결혼관계의 회복은 먼 길이라는 것을 자주 느낀다. 과거에 그들이 서로에게 주었고 경험했던 상처, 실망, 폭언들과 불신들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어서 그들의 생각 속에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이었다.

현재의 갈등과 연결되어서 그들의 다툼가운데 자주 떠오르는 내용은 그들의 미국에서의 4년간의 유학생생활이었다. 그들에게 이 기간은 서로에게 상처와 실망의 시간들이었다. 결혼직후 아내와 함께 박순호는 미국에서 4년간 대학원에서 공부하다 중도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박순호는 지금까지 이것을 잃어버린 기회로 여기고 아내의 비협조와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에 기인한 것이라 여긴다. 그는 항상 아쉬워하고 그때만 잘 넘겼다면 자신의 모습은 지금과는 모든 부분에서 다를 것이라고 여긴다. 아내가 당시에 왜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때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민다. 그에게 더 상처가 되는 것은 그것을 아내는 자신의 무능의 결과로 여긴다는 사실이고 이것을 공공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반면, 아내 최경미는 그 기간이 자신의 결혼의 꿈을 송두리째 뺏어간 시간이었고 불행의 출발이었다. 미국 온 1년 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그녀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해야만 했었고 이 때문에 남편은 아이를 갖기를 원치 않았다. 남편은 학업에 매달리며 자신에게는 무관심하였다. 그는 자

신이 힘든 일터에서 겪는 아픔과 수모는 자기하고 상관없듯 이야기하고 마치 자신에게 잘못이 있듯이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우울했고 외로웠다. 누구에게 깊이 말할 대상도 없었다.

신혼 4년의 유학생황에 대한 그들의 기억은 아픔, 상처, 실망이며 그들의 지속적인 갈등과 연결되는 주제였다.

4. 상담과정

부부 상담이 부부가 함께할 때 이상적인 결과를 유발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용서의 문제와 같이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따로 만나야 할 경우가 있다. 부부간의 용서의 문제는 서로간의 깊은 상처를 다루는 대단히 감정적인 부분이고 용서에 대한 개인적인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부를 위해 3회의 상담을 계획하는데 처음 2회는 배우자를 따로 만나는 개인 상담이며 3회째는 다시 부부가 함께하는 상담 (conjugal counseling)이다. 3회에 걸친 용서에 관한 상담은 Paul Tripp의 성경적 상담 방법인 LOVE KNOW SPEAK DO를 상담의 큰 틀로 사용했다.¹⁰⁾ 이 방법은 전체 상담과정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용서와 같은 특별한 상담의 주제를 다룰 때도 유용하다. 용서의 첫 번째 상담에서는 각 배우자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듣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단계이다 (LOVE, KNOW). 두 번째는 성경이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배우는 시간이다 (SPEAK) 세 번째는 함께 용서를 구하고 베푸는 시간이다 (DO).

5. 용서 첫 번째 상담-상처의 이해와 위로

1) 상담자는 배우자에게서 받은 상처가 어느 상처 못지않게 깊고 파괴적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과거의 상처가 있다. 상처에는 상처를 입힌 가해자가 있고 상처로 고통 받는 사람은 피해자이다. 어떤 상처는 한 번의 상처일수가 있지만 어떤 상처는 반복적이다. 결

혼관계에서 배우자에게 받는 상처가 깊고 고통스럽게 다고 오는데 이유는 결혼관계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결혼관계는 서로를 사랑하고 그 관계를 가꾸어야 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다른 어느 인간관계보다 밀접하고 일상에서 관계의 모양들이 반복된다.

배우자를 향한 용서가 결혼관계에서 과거에 일어난 상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용서가 부부간의 대화나 자녀양육의 문제 같은 결혼의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부부간의 치명적인 잘못들(간통, 도박, 구타, 알코올중독 등)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치료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혼의 연속성 자체를 위협하는 잘못들이 현재 진행 중일 때 용서의 문제는 복잡하고 우선순위를 상실하게 된다.

2) 공감적 이해 (empathic understanding)

상담자는 배우자의 아픈 과거의 상처를 들을 때 공감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즉, 아픈 과거를 기술하는 배우자의 입장에서 듣고 이를 말하고 있는 배우자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배우자가 앞의 상담자가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그는 자신이 깊게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이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상처입은 자가 믿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위로와 치유가 된다.

3) 피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

과거의 상처를 나눈 시간은 피상담자와의 신뢰의 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이다. 그러나 상담자는 피상담자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다른 이성의 배우자와의 이러한 만남은 더 이상 갖지 않는 게 좋다. 과거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배우자의 심리 상태는 상당히 불안정하게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위로하는 이와 쉽게 심리적 연계 (attach-

ment)가 이루어 질수 있고 이는 부적절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앞에 소개된 사례에서 최경미는 신혼 1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15년의 결혼생활을 남편과의 갈등가운데 살았다. 그녀가 느끼는 큰 불만중의 하나는 남편과의 거리감이다. 감정의 교류가 없는 남편과의 거리감 때문에 평소에 자신의 속마음이나 걱정을 내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때 상담자가 남자이며 그녀의 과거의 아픔을 들어줄 때 무의식적인 감정적인 연계가 형성될 수 있다. 상담자는 상담내용의 경계와 피상담자와의 만남의 범위를 항상 확실히 설정하고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대비해야 한다.

4) 피상담자의 말로 상처의 기술 (Description)

먼저 배우자에게 상처를 기술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대부분 상처에 관해 자신의 입장에서 대단히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다. 상담자는 가능하면 배우자가 자신의 상처와 그 상처에 대한 느낌, 그리고 상처의 상황들을 정확히 표현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이러한 본인의 말로 하는 기술을 통해 피상담자는 상처와 상황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갖게 된다.

남편 박순호는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능력자로 치부하며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 앞에서 직접 말로 기술해 볼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 당시의 상황이 생각 날 때 대부분이 자신의 생각 속에서 주관적으로 내리는 해석에 상처의 이해를 의존하였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왜 그렇게 자신의 유학생살가운데 힘들게 하고 공부를 방해하는 것 같은 불평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불만과 상처들을 이야기 하면서 자신이 당시 너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받은 상처의 성격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자신을 무능력한 남자요 실패한 남자로 여기는 것 같은 아내로부터 받은 남자로서 그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고 수치심을 느꼈다.

5)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해

과거의 상처가 피해자를 힘들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피해자 안에 존재하는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이 감정 때문이다. 분노 가운데 많은 경우 복수심이 있고, 받은 만큼 아프게 해주겠다는 것, 그리고 최소한 자신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알게 해주려고 한다. 또한 자신이 겪는 아픔을 배우자가 알았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박순호는 아내를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녀의 부정적인 생각과 헌신의 부족이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아내가 이러한 모습을 인정하고 잘못을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그녀의 잘못 때문에 자신에게 얼마나 힘들어 하고 좌절을 경험하게 했는가를 깨닫길 바랐다.

최경미는 남편에게 깊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별 기대가 없었다.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는 남편에 대한 신뢰는 거의 바닥수준이었다. 유학시절 남편을 믿고 따라와서 희생을 한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편견과 야단뿐이었다. 그는 항상 자기중심적이었고 대화를 하지 않고 피하기만 한다.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잔소리와 냉소적인 말투뿐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이 겪는 외로움과 우울함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6) 용서의 필요성과 연관된 성경의 이해

용서의 첫 번째 상담의 마무리는 용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피상담자가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겪고 있는 상처의 아픔과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용서가 없이는 해결될 수 없음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용서가 없이는 남편과의 화해 그리고 더 나은 관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용서의 동기가 자신의 고통에서의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반 심리학이나 기독교심리학에서 말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이다. 이들은 용서의 동기를 상처받은 피해자의 고통에서부터 출발한다. 당신의 고통의 경감을 위해서 당신이 용서를 선택

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Enright의 말대로, 용서는 선택 (choice)이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용서가 선택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나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또 내가 더 나은 기분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기 보다는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이 그의 말씀들을 통해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하여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의무이다.

가장 적절한 성경의 예는 주기도문이 될 것이다. 예수님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용서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가르치며 용서를 명령하고 있다. 주기도문과 함께 예수님의 용서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은 마태복음 18장의 예화를 통해서이다.

마지막으로, 다음 상담을 위해 앞에 언급한 성경구절들을 읽으며 자신의 용서의 상태와 연결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길 권면한다.

6. 용서 두 번째 상담-용서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나눔

성경에서 용서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은 마태복음 18장 예수님의 비유에서 발견된다. 이 비유는 베드로가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지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을 하면서 사용한 것이다. 이 비유가 삶에 있어서 용서에 관한 모든 경우에 대한 자세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 용서의 의미와 실천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비유는 임금(하나님)이 일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 빛을 진 종을 용서해 주었지만 그 종은 동료의 작은 빛을 탕감하지 않고 옥에 가두어 핍박한다. 이를 안 임금은 분노하여 빛을 탕감 받은 종을 옥에 가둔다는 내용이다. 이 비유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는 예수님의 말로 맺는다.

상담자는 남편과 아내를 따로 만나 다음의 내용을 나누면서 결혼관계에서 용서의 의미와 필요성을 나눈다.

1) 용서하지 않음은 또 다른 모양의 가해자가 되는 것

Tim Lane은 이 비유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은 종의 빛을 탕감하는 주인으로 묘사되는 것이라고 한다.¹¹⁾ “빛 탕감”의 메타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용서사역의 의미와 용서에서의 인간관계의 역동적 변화, 그리고, 용서의 의미를 설명해 준다.

우리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칠 때 빛을 탕감하는 비유를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용서라는 원어적 뜻은 “빛을 탕감하다” (canceling a debt) 이다. 그리고 일흔 번에 일곱”의 용서와 “일만 달란트”의 빛의 탕감은 무제한적, 무조건 적인 용서를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한 방식을 나타낸다.

이 비유의 핵심은 상처를 입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우 상처 입은 자가 약자이지만 용서의 상황에서는 반대로 빛을 갚아야 할 “약자”는 상처를 입힌 가해자라는 점이다. 상처를 입힌 자는 상처 입은 자에게 용서 받아야 할 “용서의 빛”을 지고 있는 것이다. 용서는 상처 입은 자가 상처를 준 자에게 베푸는 것이다. 아래의 어느 독일군 병사에 관한 실제 일화는 “용서의 빛”의 의미를 잘 설명해 준다.

세계 2차 대전 중 폴란드의 유대인 포로수용소로 러시아 전방의 전투에서 부상당한 독일군 병사들이 실려 온다. 병사들을 간호하고 있는 어느 유대인 의사에게 실명의 거의 죽어가는 독일군 장교는 그를 치료하는 이가 유대인 의사라는 것을 알고 죽기 전에 자신이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라며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한다. 그는 러시아 유대인 마을의 잔인한 학살을 지휘한 후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했다. 죽음을 앞둔 그의 간절한 소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직접 받는 용서였다. 그러나 그 의사는 거둬주는 그의 용서의 요청을 거부하고 그가 죽은 후 병실을 빠져나온다.

가해자인 독일군 장교는 유대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후 유대인들에게 용서의 빛을 진 채무자가 된 것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이고 이 용서를 받기 전에는 그의 영혼은 자유할 수 없었다. 유대인으로부터 용서는 그의 마음의 빛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도 용

서하지 않는 것이 채무자의 숨통을 쥐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용서를 하지 않음으로 피해자가 어느새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례의 두 부부도 상처를 준 상대를 용서할 필요가 있다. 지난 상처를 마음에 안고 상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안고 살아감으로 계속해서 상대방의 숨통을 쥐고 있는 것이다. 용서가 없는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과 비난이다. 그러나 진실로 용서를 베푼다면 상대방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고 상대 배우자가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게 될 것이다. 마음의 변화는 자세와 행도의 변화를 유발하기 시작한다.

2) 용서: 일방적인 빛의 탕감

용서의 방식에서 중요한 점은 탕감의 방식이 “일방적”이요 “무조건적”이라는 것이다. 어떤 경우의 용서는 가해자의 고백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나 결혼관계에서의 진정한 용서는 상처를 준 배우자의 반응에 상관없이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죄가 하나님의 의를 범했음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일방적으로 용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용서 (Forgiveness)와 화해 (Reconciliation)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만 분명히 구별되는 개념이고 행위이다. 화해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인 것이다. 용서는 이 화해를 위한 과정이다. 상대방 배우자의 사과와 고백과 상처받은 이의 용서의 배품이 있을 때 쌍방 간의 (어떤 한 부분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결혼관계에서 용서는, 가해자의 고백이나 사과에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다. 용서를 하기 위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의 고백이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

사례에서의 부부는 미국에서의 어려움과 상처에 대한 고백들을 상대방으로부터 듣고 싶었다. 상대방으로부터 잘못했다는 고백 또는 자신의 고통에 아파하는 모습을 본 후에야 용서의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

들 부부에게 이것이 실현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자신의 상처가 훨씬 아프고 커 보였던 것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 배우자를 향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용서였다. 물론 이러한 용서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미래와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희생이다.

3) 진정한 용서의 의미

Timothy Lane은 용서의 의미로 3가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¹²⁾ 즉, 다시 상대가 준 상처를 다시 언급하지 않고, 이를 가십 (gossip)화 하지 않고, 상대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 구체적으로 용서는 가해자를 향한 분노, 미운 감정을 포기하는 것이다. 용서는 화해를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왜냐하면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이에 대한 미움, 분노, 복수심, 서운함 감정을 포기하기 시작하며 진행이 된다. 당신이 용서를 베풀길 원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다. 부정적인 감정의 포기와 함께 용서는 축복하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 등의 긍정적인 감정이 수반된다.

박순호 최경미 부부는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당시 그들의 유학생 활에 받았던 상처와 아픈 경험들이 부부 싸움에서 주기적으로 언급된다는 것이다. 당시에 각자가 받았던 상처와 아픈 경험은 현재 그들의 갈등을 해석하는 틀이 되었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였다.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함으로 다시는 당시의 상처들을 가지고 와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용서는 그들이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는 분노, 배신감, 실망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할 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반응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권리일 수가 있다. 그러나 용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따르는 희생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닮은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용서는 천문학적인 빛을 탐감하는 것 같은 희생과 같은 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포기하고 오히려 염려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용서 이전에는 상대방의 불행을 바라고 상상하며 위로를 삼으려 했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안위를 걱정하고 축복하는 마음이다.

4) 용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과정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한다는 것은 대상이 배우자일지라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더 힘든 것은 비록 용서를 한 것 같으나 분한 마음이 다시 생기기 때문이다. 용서는 일회적 사건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용서는 일회성이 아닌 인생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¹³⁾ 미운 감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고백했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전한 용서는 가능하다. 성령님이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된다.

Worthington을 비롯한 심리학자들은 용서를 이타적인 선물(Altruistic gift)로서 규정하는데, 이는 용서를 일회적인 사건으로 가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용서라는 선물을 베풀 수 있지만은 사람이 받은 상처는 쉽게 잊혀 지지 않는다. 특별히 결혼생활에서의 상처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인 변화와 용서의 과정이 필요하다. 부부관계에서의 용서의 동기와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므로 박순호 최경미 부부에게 아직도 상처를 준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남아있다고 해도 심하게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어떤 상처는 수년의 기도와 용서의 몸부림이 필요하다.

5) 용서의 실행

이러한 용서의 내용을 각각의 배우자는 선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이러한 상처를 입힌 것을 용서합니다” 라고 고백한다.¹⁴⁾ 그러나 배우자에게 용서의 내용을 꼭 알릴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상처의 언급이 될 수 있고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순호 최경미 부부는 상담자에게 자신을 상처라고 느끼는 아내의 비협조, 불만, 자신을 무능력자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한다고 고백하게 되었다. 같은 내용을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고백하였고 지속적인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6) 화해를 위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을 준비

마지막으로 다음 상담 시간으로 예정된 화해를 위해 자신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목록을 작성한다. 상담자는 이러한 목록들을 미리 받아 어떤 예기치 못한 이슈들이 나오는 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담 중 박순호는 자기중심적인 모습,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과 비난들에 관한 것을 최경미는 자신의 남편을 무시하는 말, 부정적인 생각들과 남편을 도와주지 못한 것들을 적었다.

7. 세 번째 용서 상담-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약속

1) 세 번째 상담의 목표는 화해를 위한 것으로 다시 부부가 함께 한다. 그동안의 용서의 진전에 대해서 요약하며 다시 함께 하는 상담이 용서의 마무리가 됨을 주지시킨다. 중요한 것은 서로간의 관계에서 용서의 동기와 실천의 중심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처로 인해 서로가 힘들었고 각 배우자의 힘든 부분이 언급될 수는 있으나 더 나은 느낌과 감정을 위함이 용서의 주요 동기가 될 수는 없다. 아직도 서로에게 상

처를 준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두 사람 모두가 완전히 자유하지는 않지만, 삶의 중심인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용서를 하는 것이다.

2) 세 번째 상담의 주요 목적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므로 화해로 가는 것이다. 두 배우자는 이미 상대방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했고 또 용서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직접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므로 화해를 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많은 경우 자신이 이미 용서한 내용을 상대방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것이나 화해는 가해자의 잘못의 고백과 피해자의 용서가 함께하는 쌍방적이다. 이러한 잘못의 고백과 용서의 베품으로 화해는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용서와 화해는 부부사이에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사례에서의 박순호 최경미 부부는 서로를 힘들게 했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부부관계를 아픈 과거로 되돌리고 진정한 변화의 방해가 되었던 유학시절의 상처를 이제 뒤로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그들의 관계를 위해 용서를 하는 용기를 발휘한 것이다.

3) 용서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의 상처가 인간관계속에서의 산물이라면 용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산물이다. 상처는 다양한 인간관계와 환경의 휴먼드라마이지만 용서는 하나님의 의와 뜻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드라마라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용서를 인간관계에서 먼저 해결하려다 실망과 좌절을 경험한다.

용서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된다. 용서 없이 많은 이들이 과거의 상처로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다. 상처를 되씹으며 복수 악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예수님의 예화에서 언급되었듯이 용서를 하지 않은 것은 자신과 용서가 필요한 상대방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주님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감옥에서 탈출하여 자유롭게 되길 원하신다.

용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로서 가능하다. 우리의 상처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짐과 동시에 우리가 미워하는 이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상처와 용서의 고통으로 힘이 들 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용서의 동기를 부여하시고 용서의 의미가 되신다. 우리가 이러한 용서의 여정가운데 있을 때, 용서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할 때, 어느덧 성숙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III. 닫는 글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그리스도안의 용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복음이 용서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과 같은 성도들의 삶에서 용서는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용서의 실천에 대해서 다루는 문헌들은 성경적인 관점이 결여된 심리학적인 연구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글은 사례를 통해 성경적인 용서의 접근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논했다. 실제 용서의 영역은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대단히 복잡하다. 용서의 문제는 관련된 개인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재단된 (tailored) 도움과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용서에 관한 연구들이 깊이 있는 성경적 진리와 함께 다양한 사례연구를 포함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 Adams, Jay E. *From Forgiven to Forgiving*. Amityville, NY: Calvary Press, 1994.
- Browning, Don. *A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 Descriptive and Strategic Proposal*. Minneapolis, NM: Fortress Press, 1991.
- Cavalho, Esly R.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Keeping It Simple," *Marriage & Family: A Christian Journal* 2. Spring (1999): 169-174
- Doff, Elliot N. "The Element of Forgiveness: A Jewish Approach." In *Dimensions of Forgiveness: Psychological Research & Theological Perspectives*, ed. Jr. Everett L. Worthington. Philadelphia, PA: Templeton Foundation Press, 1998.
- Enright, Robert D. *Forgiveness Is a Choice: A Step-by-Step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1.
- Everett L. Worthington, Jr. "The Pyramid Model of Forgiveness: Some Interdisciplinary Speculations About Unforgiveness and the Promotion of Forgiveness." In *Dimensions of Forgiveness: Psychological Research & Theological Perspectives*, ed. Jr. Everett L. Worthington, 107-138. Philadelphia, PA: Templeton Foundation Press, 1998.
- . *Hope-Focused Marriage Counseling*. Downers Grove, CA: IVP, 1999.
- . *Forgiveness and Reconciling: Bridges to Wholeness and Hope*. Downers Grove, CA: IVP, 2003.
- Ferch, Shann R. "Marital Forgiveness: A Case Study of Forgiveness and Multiple Extramarital Affairs." *Marriage & Family: A Christian Journal* 2, no. 2 (1999): 159-170.
- Hargrave, Terry. *Families and Forgiveness: Healing Wounds in the Intergenerational Family* Routledge, 1994.
- Jones, Gregory L. *Embodying Forgiveness: A Theological Analysis*. Grand Rapids, MI: Eerdmans, 1995.
- Lane, Timothy S. "Pursuing and Granting Forgiveness."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3. no2 (2005): 52-59.
- Pargament, Kenneth I., and Mark S. Rye. "Forgiveness as a Method of Religious Coping." In *Dimensions of Forgiveness: Psychological Research & Theological Perspectives*, ed. Jr. Everett L. Worthington, 59-78, 1999.

- Smedes, Lewis. *Forgive and Forget: Healing the Hurts We Don't Deserve*.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1984.
- Smith, Winston. "Getting the Big Picture of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2. no2 (2004): 5-14.
- Tripp, Paul David.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2002.

[후주]

- 1) Don Browning, *A Fundamental Practical Theology: Descriptive and Strategic Proposal* (Minneapolis, MN: Fortress Press, 1991), 54.
- 2) Lewis Smedes, *Forgive and Forget: Healing the Hurts We Don't Deserve* (San Francisco, CA: Harper One, 1996). 특별히 Smedes는 용서와 관계된 상처의 자세한 기술을 통해 용서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3) Robert D. Enright. *Forgiveness Is a Choice: A Step-by-Step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1).
- 4) Everett L. Worthington, Jr. *Forgiveness and Reconciling: Bridges to Wholeness and Hope* (Downers Grove, CA: IVP, 2003), and idem, *Hope-Focused Marriage Counseling* (Downers Grove, CA: IVP, 1999).
- 5) Everett L. Worthington, Jr. "The Pyramid Model of Forgiveness: Some Interdisciplinary Speculations about Unforgiveness and the Promotion of Forgiveness," in *Dimensions of Forgiveness: Psychological Research & Theological Perspectives*, ed. idem (Philadelphia, PA: Templeton Foundation Press, 1998), 107-138.
- 6) Worthington, Jr. Hope-Focused, 128-146.
- 7) Elliot N. Doff, "The Element of Forgiveness: A Jewish Approach," in *Dimensions of Forgiveness: Psychological Research & Theological Perspectives*, ed. Everett Worthington, Jr. (Philadelphia, PA: Templeton Foundation Press, 1998), 29-58.
- 8) Winston Smith, "Getting the Big Picture of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2 (Fall 2004): 5-14.
- 9) Ibid., 13.
- 10) Paul David Tripp,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2002).
- 11) Tim Lane, "Pursuing and Granting Forgiveness,"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23 (Spring 2005): 52-59.
- 12) Ibid., 53-54.
- 13) Ibid., 54.
- 14) 어떤 용서의 의식으로 용서의 내용이 적힌 노트를 불로 태우기도 한다. 예를 들면, Esly R. Cavalho,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Keeping It Simple," *Marriage & Family: A Christian Journal* 2 (Spring 1999): 172.

【 Abstract 】

The Issue of Forgiveness of Marriage Counseling
in the Biblical Perspectives

Kim Jun
(Ph.D., Boston university)

This essay offers a biblical perspective on the forgiveness issue raised in the context of marriage counseling. Forgiveness is often seen as a key factor to resolve conflict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cluding marital relationship. However, current studies on forgiveness in Christian counseling literature tend to be psychological and lack sound biblical perspective.

After assessing an approach to forgiveness, Everett Worthington, Jr.'s five step forgiveness model, this essay offers an biblical approach to forgiveness issue in marriage by using a case. The approach consists of three sessions, twice with individual spouses and once with a couple. The first session is for understanding the hurts with some cautions in dealing with the issue in marriage counseling. The second provides several distinctive points that differ from current literature from Jesus' parable on Forgiveness in Matthew 18: 23-35: Forgiveness is not a choice, but God's command that requires his people's obedience; Refusing forgiveness may lead victims to become victimizers; Forgiveness is not an one-time event but life-time process, which needs help from the Holy Spirit; Forgiveness can be best understood in the light of the work of Christ and believer's union with Christ.

Finally, the essay points out that forgiveness is God's gift to his people. By offering this gift to others, Christians are experiencing the power of living God in their lives.

Key words: Forgiveness, Marriage, Biblical Counseling, Forgiveness in the Bible, Christian Counseling